



사노피, 유전자기술 전문기업 바이오니아와 항암 신약 공동 연구 협력

- 차세대 유전자 신약 기술 활용해 고형암 분야에서의 표적 항암 신약 공동 연구 추진
- 국내 바이오벤처 1호 기업과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간 협력으로 관심 모아

2012년 5월 29일 - 최근 난치성 질환에 대한 맞춤형 유전자 치료 기술이 주목 받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바이오벤처 1호 기업과 글로벌 제약 회사의 신약 연구 협약에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세계적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는 국내 바이오벤처 1호 기업이자 유전자기술 전문기업인 바이오니아(대표 박한오)와 항암 신약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사노피는 바이오니아가 전세계 최초로 개발한 차세대 나노 입자 치료제인 새미알앤에이(SAMiRNA) 물질을 통해 한국인에 유병율이 높은 간암을 포함한 고형 암 분야에서 표적 항암 신약 후보 개발에 나선다. 새미알앤에이(SAMiRNA)는 암 조직에만 선택적으로 전달되어 암을 유발하는 유전정보전달물질(RNA)을 분해시키는 물질로, 사노피는 이 물질을 이용해 자사가 발굴한 암 표적 유전자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향후 표적 항암 신약을 개발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바이오니아 박한오 대표는 “바이오니아가 보유하고 있는 차세대 유전자 신약 기술은 다양한 질병 유전자에 대한 선택적 공략이 가능해, 아직 치료 대안이 없는 다양한 난치병 치료제에 대한 연구에서 향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우수한 항암 파이프라인과 R&D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노피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글로벌 항암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노피 R&D 이승주 이사는 “항암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주요 치료제를 개발 공급해 온 사노피는 한국인에 유병율이 높은 암 종에 대한 신약 개발을 위해 국내 유수의 임상센터 및 연구 파트너들과 협력해 왔다”며, “바이오니아와의 파트너십 역시 국내 R&D 투자 협력의 일환으로, 이를 통해 암 치료 분야에 새로운 치료 대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동 연구 결과에 따라 사노피는 이르면 2013년에 바이오니아가 보유한 관련 기술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을 추진하고, 신약 후보에 대한 임상 연구를 시작할 예정이다.

사노피는 국내에서 한독약품과 50여 년이 넘는 장기 파트너십을 유지해 오고 있으며, 셀트리온과도 항체 의약품 공정개발 및 생산 등에 대한 파트너십을 맺은 바 있다. 이 밖에도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전략을 기반으로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과 혁신적인 신약 연구개발을 위한 신약후보 발굴, 중개 연구, 임상연구 등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R&D 투자와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사노피(Sanofi)에 대하여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사노피(Sanofi) 그룹은 인간 삶의 개선을 위한 치료 솔루션을 연구, 개발 및 제공하는 세계 선두의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서, 파리 (EURONEXT: SAN) 및 뉴욕 (NYSE: SNY)에 상장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가 전문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세노비스)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백신(사노피 파스퇴르), 희귀질환치료제 (젠자임 코리아), 동물의약품 (메리알 코리아)을 통해 예방에서 치료까지, 전문의약품에서 건강기능식품까지, 사람에서 동물까지, 환자들의 다양한 니즈에 부응하는 다각화된 헬스케어 기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바이오니아(Bioneer)에 대하여

바이오니아는 국내 바이오벤처 1위의 기업으로 2001년부터 siRNA 분야에 연구개발 투자를 진행하여 인프라를 구축, siRNA합성에 필요한 원료물질들을 모두 개발 양산하고 있으며, 대량생산 체제까지 완비했다. 또한 모든 인간유전자 18,000개에 대한 siRNA를 개발, 추후 치료제로 사용될 가장 효율적인 siRNA를 발굴하는데 있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